

전남 출신 첫 총리 탄생 김황식 임명동의안 가결

김황식 신임 국무총리가 1일 이명박 정부의 세번째 총리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첫 전남 출신 총리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정운찬 전 총리가 사퇴하고 김태호 전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빛어졌던 총리 공백 사태는 50여 일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김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데 이어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각 부처 장·차관 등 고

위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제41대 국무총리에 공식 취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총리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하겠다"며 ▲법과 원칙 ▲소통과 화합 ▲나눔과 배려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이 대통령의 큰 뜻을 이루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2일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3일 개천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는 등 본격적으로 총리직 수행에 나선다. 장성 출신인 김 총리는 1972년 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으며, 1974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정통 엘리트 법관 코스를 밟았다. 서울고법판사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광주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을 지낸 뒤 2008년 9월 감사원장으로 기용됐다. 이에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7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주선의 도전

지역 대표주자 당권 경쟁 주목

내일 민주 전대

민주당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호남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광주 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주선 후보의 당권 도전 결과에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직통임을 내세우며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박 후보의 선전 여부는 민주당 분류인 광주·전남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데다 지역 정치권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J 이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대권 주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주류를 전전하면서 점차 현실 정치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후보가 이번 지도부 경선에서 선전한다면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 정치권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동력 부활로 이어져 광주·전남지역의 미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박 후보는 "당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꾸지 않고서는 민주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민심의 진단"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변화를 기반으로 한 '박주선 드라마'를 연출, 민주당 정권재창출에 핵심 동력이 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체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는 1순위 표에서 3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2순위 표에서는 확고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곡색이 비교적 열여 타 당권주자들과의 복합적 연대가 가능해나 수도권 대의원의 30~40% 정도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박 후보의 선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의원의 2순위 표가 결정된다면 박 후보가 3위 이내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대표로 선출되는 드라마를 연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각 당권 주자 진영의 자

실제로 각 당권 주자 진영의 자

아기자기한 건강길 우리곁에 있었네

■무등산 '무돌길' 미리 걸어 보니



무등산자락을 둘러볼 수 있는 '무돌길' 일부 개방을 하루 넘겨둔 1일 무등산공원 관계자들이 역새 풀밭이 펼쳐진 12길 구간을 걷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무등산 자락을 한바퀴 도는 무돌길 15개 노선, 50km 중 12길~13길 2개 노선이 2일 개방된다. 화순지역에 걸쳐있는 12길은 화순읍 수만리 중리마을 정자부터 만연재, 무성아골을 거쳐 광주시 동구 용연마을 정자에 이르는 4km 구간으로 걷는데 1시간 30분 가량이 걸린다.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13길은 용연마을 정자에서 용주계곡, 선교마을을 잇는 2km 구간이며, 도보로 1시간 정도 소요된다. 광주일보보는 1일 숲해설사 이예심 씨 등 무등산공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엔 개방되는 12길 중 일부를 미리 둘러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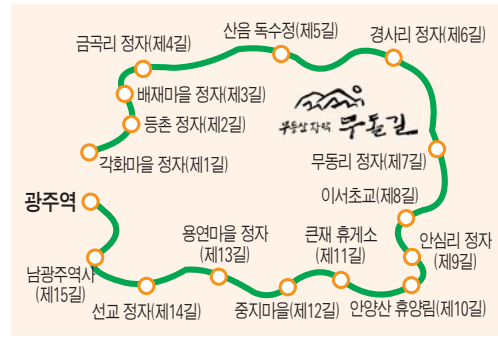
용연마을 정자를 출발해 10여 분을 걸으면 마을입구임을 알리는 안내석과 함께 '무등산 자락 무돌길'이라고 쓰인 나무 표지판이 등장한다. 표지판을 지나 다시 10분 가량을 더 가면 포장된 도로가 끝남과 동시에 십자진지 수 백 년은 지났을 법한 등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등나무를 막 지나 7~8m 길이의 콘크리트 다리 하나를 건너면 멀리 보이는 무등산 장봉재와 함께 산길이 시작된다. 우거진 나무 숲이 만든 그늘과 오른쪽에서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본격적인 산길이 시작됐음을 알린다. 산길 곳곳에 깔린 작은 돌들은 투박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20여 분을 더 걸다 보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계곡이 산길 왼쪽으로 서서히 펼쳐진다. 산길을 걷는 동안 귀가에 들려오는 계곡의 물소리는 무돌길 12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산길 여기저기에 울려 퍼지는 새 소리 역시 경쾌한 계곡물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무돌길을 걷는 즐거움을 더한다.

계곡을 따라 조금 더 걸으면 '아들 바위'라는 이름의 넓적한 바위와 마주치게 된다. 과거 화순과 광주를 오가는 이들이 잠시 멈춰 쉬어가던 곳이다.

용연마을 정자를 출발해 총 3km를 걸다 보면 녹색에서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작은 들녘과 함께 역새 풀밭이 나타난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오른쪽에 있는 염소목장과 함께 12길의 아기자기한 맛을 느끼게 한다. 산길 앞으로는 무등산 백마능선이, 머리

위로를 파란 하늘과 흰 뭉게구름이 펼쳐져 있다. 이예심씨는 "무돌길 가운데 12길은 비교적 가파르지 않아 누구나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며 "천천히 산길을 걸으면 바쁘게 사느라 누리지 못했던 여유를 한껏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자기자 kimho@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번치 스파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돌잔치: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침소언 · 각종 세미나 (대·중·소연회장 반바)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ENJOY THE FOOD LIFE"
베네치아와 함께 하세요!!
스테이크의 환상 짝꿍! 와인
저희 베네치아 월드컵점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향 좋고, 맛좋은 고급 와인을 저렴한 가격에 즐기실 수 있으며 각종샐러드와 다양한 스테이크, 해산물요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거운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베큐 폭립 바닷가재 안심스테이크 메로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월드컵점 OPEN
패밀리레스토랑 (since 1988)
베네치아
www.venezia.co.kr
대소모임을 위한 단체(40~70석가능)
베네치아 20%할인 및 포인트·적립·결제카드
SK멤버십카드 / OK Cash Bag신세계포인트카드 / 광주은행비자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월드컵 경기장 월드컵 롯데마트 베네치아 월드컵점 승마장 중앙생할 체육공원

월드컵점 062) 675-6636
모아골프연습장 1층
*본점 062) 227-9363
*롯데점 062) 232-7370 *신세계점 062) 360-1981
*목포점 061) 283-2720 *첨단점 062) 971-7654